

전북시민대학 공모 최종 선정

군산시 지역 평생교육사업 우수성 인정... 관내 4개 대학 모두 참여 상생 협업 확산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시민대학 군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은 시가 예산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각 대학교에 전문 교육생 모집 홍보,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전북시민대학 시범 운영사업은 전라북도가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추진에 맞춰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협업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지역의 동반성장으로 도

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운영 사업이다.

지난 6월 15일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평생교육정책진흥원에서 총 3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관내 4개 대학 실무자와 4차례 걸쳐 군산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학습 참여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4개 모든 대학 캠퍼스별 학습매니저를 선발해 학습형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 관내 모든 4개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군산대학교는 인문 역사 특화과정인 '군산에서 세계로 떠나는 역사기행', 호원대학교는 가족 교육 및 힐링을 위한 'HU 평생교육 24+ 프로젝트', 군장대학교는 군산시 K-문화콘텐츠, 군산간호대학교는 건강과 미래 등 총 13개 특화 프로그램이 각 대학교에서 동시 운영된다.

또한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공동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는 무인화의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죽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기좋은 죽도 만들도록 노력할 것”

군산시, 공도방지 사업 추진... 안정적 도서생활 인프라시설 구축

군산시는 지난 21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무인화의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죽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섬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23년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3년~'26년까지 총사업비(9억원)의 70%를 국비(6.3억원) 지원받아 도서지역(죽도) 생활인프라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과거 죽도는 삼치 파시(바다위에서 열리는 생산시장)가 열릴 정도로 주민이 거주했던 섬이었으나 집안시설,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상주주민이 점점 줄어들어 현재 14명만이 거주중인 섬이다.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사업'은 오는 8월부터 도서주민의 가장필요한 수도시설을 우선 정비해 부족한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 및 호안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연차별 사업을 추진 계획이다.

연차별로 2024년 안전 및 편의시설, 2025년 집안시설, 2026년 호안시설 등 인프라 시설물을 구축해 안정적인 도서생활 정주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며, 도서(죽도) 인구소멸 방지 및 국가적 작은섬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죽도의 집안시설,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죽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기록적 폭우 체계적 대응... 인명피해 막아

긴급대피명령·사전대피 등 현장대응력 발휘... 시민안전 지켜 내

익산시가 기록적인 폭우 피해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긴급대응으로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았다.

특히 붕괴위험에 놓인 산복천을 붙잡고 48시간 만에 막아낸 긴박했던 순간, 조직적인 현장 대응력으로 주민 안전을 지켜냈다.

시는 13일부터 내린 평균 455mm(최고 합리면 595.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금강·만경강 하천범람 우려 속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시는 비상조치 2단계를 발효하고 전 행정력을 최고수준의 대응태세로 전환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심 침수지역 등을 긴급 점검했다.

또한 하천범람, 도시침수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준포면 세원교 2개교와

금강 민경강 주변 하천변 출입로 44개소에 대해 사전봉쇄로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15일 익산 북부권 집중호우에 따른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인명피해를 막아냈다.

집중호우로 금강 지류인 산복천의 제방 붕괴위험이 감지돼 16일 10개 마을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대피시켰다.

당시 폭우로 급격히 물이 불어난 대청댐이 15일 오전 홍수조절을 위해 초당 3000으로 방류량을 늘려 논산을 지나 금강 지류인 산복천으로 흘러갔고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됨에 따라 금강하굿둑 갑문 20개를 모두 개방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해바다 만조로 금강 물 흐

름이 막히자 금강과 합류하는 산복천 일대가 수위가 상승해 강과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다. 그 여파로 제방 붕괴위험까지 놓인 위험천만 사태를 맞이했다.

이에 시는 15일 오후 용안면 석동 배수장 수문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는 접수에 곧장 집중호우 속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쏟아지는 비 속 철야 작업을 분사하며 굴삭기, 포클레인, 덤프 등 수 십여 대와 파쇄석 2500톤, 돌방대 50개, 톤백, 흙 등을 실어내려 세 차례의 복원으로 산복천 임시 보수작업을 18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에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수해피해 접수에 행정력 집중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정 따라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마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국제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 행정안전부의 검증 - 복구비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신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군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출생이등록 이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

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자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침수 농업기계 긴급 수리지원 나서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업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해 농업인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시는 농업인의 피해 복구와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리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가 큰 용안·망성·용동면에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농기계 수리 신청접수 후 8월 1일부터 8일까지 거점 마을 3개소에서 순회 수리 지원에 나선다. 농업기계 수리반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원, 농기계 업체(아세이텍, 태광공업),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수리 기종은 소형농기계 3종(보행관리기, 양수기, 예취기)이며 침수 농기계에 대한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모품에 대한 무상 교체, 현장 수리가 어렵거나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는 각 제조업체 대리점과 연결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북부권 침수지역 집중방역... 감염병 예방

익산시가 북부권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으로 감염병을 예방한다.

보건소는 침수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위하여 방역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했다. 침수 피해가 심한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을 중심으로 보건소 방역기 동남 2면, 각 면 방역반과 협업체를 투입해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긴급 투입된 방역기동반은 침수지역과 방역 취약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했다. 마을별로 방역반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추진해 감염병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리, 모기 제거제인 에어로졸 4,000개를 각 세대에 배부하여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다이로일자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방역 소독해 즉각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